佛音吼, 불음으로 전하는 '사자후'

수월 스님, 불교 음악가 후원회 조직

넷째 주 수요일 토크콘서트 '방생' 스님이 통기타 치며 법음 전해 불자들에 큰 감동 주며 '입소문' "불교 음악 활성화 위해 노력"


(사)불음후는 매월 넷째 주에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당서 '콘서트 방생'을 진행하고 있다.

소박한 규모의 콘서트였음에도 불구, 청중들 사이에는 즐거움을 넘어 감동의 물결이 넘실거렸다. 부처님 법에 음을 붙인 법음(法音)의 진리는 청중들 마음속 번뇌를 씻겨주고, 참 자유를 안겨주었다.

사단법인 불음후(대표 수월)가 전하는 토크 콘서트 '방생'이 매달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사)맑고향기롭게 부산 법당서 열리고 있다. 수월 스님은 불자들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콘서트 제목을 '방생'이라 명명했다.

6월 22일 콘서트 현장에선 수월 스님의 통기타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월 스님은 화엄의 세상과 열반의 기쁨, 만족과 지족을 노래하며 중간 중간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

이날 함께한 청중들은 음악을 통해 법문을 전해 들으니 마음 깊숙이 그 내용이 흘러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조갑룡 불자는 "사람의 삶 속에는 감성과 이성이 있는데 예술은 이 모든 것을 넘어 감동을 안겨주고 사람을 변화하게 한다"며 "통기타를 들고 법음을 전하는 스님을 뵈니 불교가 더욱 편히 느껴진다. 부처님 말씀을 담은 가사 하나하나가 잊혀 지지 않을 정도로 가슴 깊이 남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공영석 불자는 "올 2월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도반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다"며 "법정 스님의 법구경까지 음악을 통해들으니 그 깊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환희심을 표했다.

토크 콘서트 '방생'은 불교음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불교음악의 중요성을 알리고 열악한 환경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이에 앞서 수월 스님은 불교음악인들 몇몇과 함께 불교음악후원회 (사)불음후를 조직했다. 6월 3일 비영리법인으로 부산시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불교음악 인재양성 · 법음 포교 등에 앞장설 계획이다.

수월 스님은 "불음후의 '후'는 부처님 말씀을 의미하는 사자후할 때의 '후'"라며 "부처님 법을 음악에 담아 전하는 이들이 불교음악가들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님은 "많은 불자 가수들이 더 많은 행사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상 음악가'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열악한 현실 때문에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며 "불음후 후원을 통해 많은 불교 음악가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월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해 청암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동국대 문과대 철학과 졸업 후 일본 쯔꾸바 대학 대학원 장애자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앨범은 '우리말 반야심경(1984)', '진리의 말씀법구경(1985)', '오소라(1986)', '물같이 바람같이(2013)'를 발표했다. 공연은 2014년 10월 15일 부산 KBS홀, 2015년 4월 8일 서울 KBS홀에서 각각 우리말 반야심경 '천재일우'를 무대에 올렸으며 현재 부산 엄궁동 승학산 아래 마음이 쉬어가는 절 '백석사'에서 도심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응공조계종 동명사, 부처님 점안법회

6월 19일 칠곡 동명사서… 사부대중 200여명 참석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 총본산 총무원 칠곡 동명사는 6월 19일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 총본산 총무원 칠곡 동명사서 6월 19일 부처님 점안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종정 명진 법운 대종사와 원로의원 평원 · 홍원 · 수덕 스님, 종도 지암 · 덕산 · 명원 · 보현 · 성애 · 원각 스님 등 대중 주지 스님들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점안의식은 집회가를 시작으로 증명단 삼화상을 청하고, 상단권공 · 육법공양 · 오공양 · 요원승 · 요잡작법 · 신중공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명진 법운 대종사(동명사 주지)는 "오늘 동참한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세세생생 좋은 인연으로, 삼독심을 훨훨 버리고 걸림 없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수암 스님의 사미계 수계도 진행됐다. 수암 스님은 명진 법운 대종사를 은사로, 원로의원 평원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십계명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지역 포교 현장 이상無!"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분야별 발표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이 '분야별 연수회'를 6월 18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진행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이승표)이 '분야별 연수회'를 6월 18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진행했다. 분야별 연수회는 부산지역단이 군부대 · 어린이 · 병원 · 교도소 등에서 포교 역할과 상황을 발표하는 자리이자, 앞으로 포교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다.

분야별 사례발표는 △어린이 계층포교 △군경포교 △사찰문화포교 △NGO포교 △생명나눔팀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등상은 군경포교팀이 차지했다.

이승표 단장은 "오늘을 계기로 포교내실을 기하고, 활동 중 어려움에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현재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7분야 총괄팀과 각 분야별 36개 팀으로 구성, 총 763명이 전문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역대 대종사 4명 추모 다례재 봉행

6월 15일 동화사서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스님)는 6월 15일 4명의 역대 대종사를 추모하는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는 매해 음력 5월 11일 봉행해 온 조계종 초대 종정 석우당 보화 대종사 다례재를 확대, 은사인 연담 응신 대종사와 사제인 석하 대종사, 인환 대종사를 함께 추모하는 자리로 마련한 것이다.

문도회 대표 무공 스님은 "다례재에 많은 사부대중이 동참해주신 데 대해 150명 문도를 대신해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진제 종정예하, 문도회 대표 무공 스님, 원로의회 의장 밀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

부산 해운정사 앞 초고층 아파트 공사 '물의'

해운정사, 6월 20일 기자회견 "수행 환경 훼손 우려"


부산 해운정사는 경내 바로 앞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는 데에 수행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6월 22일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해운정사 전경.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 앞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 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해운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주석하며 한국 불교의 정신적 맥을 이어 가고 있는 곳으로, 전통사찰이자 참선 도량이다. 그러나 경내 바로 앞 10m 거리에 40층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 중이여서 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해운정사는 6월 20일 경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해운정사는 공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해운정사 측은 "대다수 지역주민의 염원인 우동3구역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통사찰 문화재 및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과 조화된 재개발 사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정사는 부산시 문화재자료 78호로 지정된 〈해운정사선문염송집〉과 부산시유형문화재 149호 〈해운정사 전법계〉 등 귀중한 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정사 측은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조망권이 침해되는 등 전통사찰로서 품위와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운정사는 "해운대 우동3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들은 각자의 개발 이익에만 급급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최근 재개발조합 측과 재개발 반대 세력 간 충돌이 빚어지며 지역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재개발 반대 세력의 움직임엔 해운정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단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그것은 억측일 뿐"이라 주장했다.

해운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인 진제 스님이 간화선 대중화 원력으로 1971년 창건했다. 주요 전각으로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상을 주불로 모신 108평 원통보전, 부처님 진신사리 33과를 모신 관음보궁, 1만 옥불 지장보살을 모신 대불전, 조사 스님들을 석상으로 모신 심인전(心印殿) 등이 있다. 하성미 기자

밀양 경찰서 '법우회' 창립

회원 30여 명… 초대회장 김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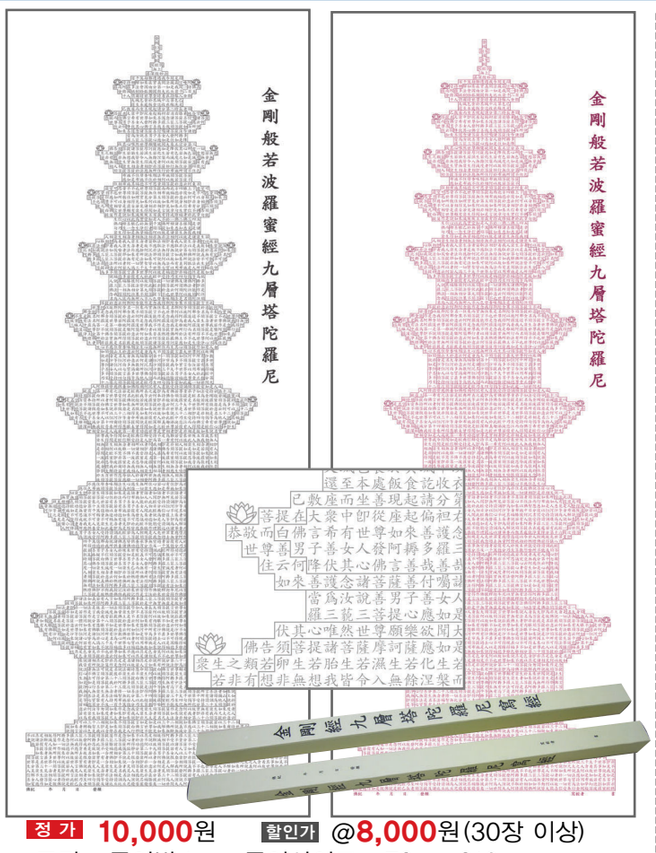
밀양경찰서 법우회는 6월 18일 밀양 용궁사 극락보전서 법우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밀양경찰서 법우회(회장 김수철)는 6월 18일 용궁사(주지 정무) 극락보전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김수철 회장은 "이웃과 늘 함께하며, 참다운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경찰 불자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온 우주 법계가 연화장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우회 창립에는 30여 명의 회원이 함께했다. 법우회는 창립 전부터 봉축법요식에 참여하고 봉축기념선물을 전 직원에게 나누는 등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공양 그릇 세척 봉사, 사명 연꽃 문화재 봉사 등도 함께했다. 하성미 기자

(특)대형금강경 9층 탑사경지 〈먹/적, 종이박스포함〉



정가 10,000원 할인가 @8,000원(30장 이상)
• 포장 : 종이박스 • 종이사이즈 : 76㎝×210㎝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30,000원(100벌)
할인가 @270원 (1000벌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정 가 1,500원
할인가 1,300원 100개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